

南北韓 經濟交流政策에서의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 選定 基準에 關한 一 研究

金 龍 龜

南北韓 관계의 진전에 따라, 對北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될 가능성, 北韓에 南韓 기업과의 합작에 의한 공단이 개발될 가능성 등이 커진 상황에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산업분야에서 北韓의 勞動力을 활용하는 인적 교류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北韓에 관련된 경제문제를 분석할 때에 항상 봉착되는 것이 직접 통계자료의 부족 문제이다. 北韓의 勞動力 실태와 직접 관련된 원자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勞動力 활용 가능 분야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자료는 貿易 統計 資料와 産業聯關表 資料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間接 統計資料의 활용, 해석을 통해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 결정 등의 경우에 북한 노동력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序 論

1.1. 本 研究의 目的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따라 어떠한 산업분야에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과의 관계진전을 위해 어느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경제협력관계를 증대시켜야 된다면 과연 어떤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특히 2000년에 들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되고 南北韓 관계가 급진전됨에 따라, 北韓의 체제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현 상태 하에서 南北韓 교역이 급성장하며 北韓과의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北韓에 南韓 기업에 의한 공단이 개발될 현실적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어떤 산업 분야에서 北韓 勞動力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적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제안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의사결정자들은 어떠한 統計資料를 사용하여 어떠한 基準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관한 제안이며, 둘째로 이러한 기준들에 의해 분석할 때에 산업분류상 어떠한 分野가 우선적인 고려대상으로 대두되는가 하는 것이다.

1.2. 勞動力 活用 分野 導出에서의 問題點

과거 독일의 경우에서도 통일 이전 동독의 경제통계 정보 획득의 어려움이 동독 관련 연구의 최대 장애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었었다. 구동독 관련 공식, 비공식 경제정보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놀라움을 표시한 것이 독일 통일 이후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北韓에 관련된 경제문제를 분석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통계자료 부족 문제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勞動力 活用 문제와 관련된 자료부족의 문제는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¹⁾ 정부 정책담당자나 민간 기업의 의사결정자 모두가 구체적인 勞動力 活用 分野를 모색할 때 봉착할 수밖에 없는 자료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제한된 정보의 제약 하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점이다. 北韓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는 달리 50여 년의 기간 중에 한번도 연간 통계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Eberstadt(2000, p. 86)] 각종 국제기구의 통계표에서도 北韓 해당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北韓이 인구 통계에 관해 포괄적인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는 北韓 당국이 자료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최초의 현대적 전국 인구 센서스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인 1995년 발표 자료가 유일한 것이다.⁽²⁾ 1993년 12월 31일 자정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1994년 1월 3일에서 15일 사이에 실시된 센서스의 자료를 담고 있는 1995년 발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구일제조사자료집: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1 December 1993)'은 유엔 인구기금(UNFPA)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조사 자료로서, 전체 527페이지의 영어표기 통계자료 중 제1부(Population, Household), 제2부(Natality), 제3부(Mortality) 등 일반적 인구통계 자료가 500페이지를 차지하고, 勞動力 活用 分野의 모색과 관련하여 좀더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제4부(Part Labor Population), 제5부(Technician, Specialist)는 501페이지에서 527페이지까지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다. 그나마 제4부, 제5부의 내용은 勞動力 活用 分野의 모색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北

(1) 北韓 통계자료의 부족 내지 부적질성에 관해서는 Eberstadt(2000)를 참조할 것.

(2) "Our country conducted the first modern national population census to collect more perfect and analytic population informatio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1995, p. 1)].

韓의 인구, 勞動力 통계와 관련하여 많은 南韓 및 외국 자료가 北韓의 이 1995년 출간 자료를 인용하고 있고 또한 이 자료를 ‘분석’ 하여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나, 그것은 北韓의 관련 공식자료가 이것뿐이기 때문이며, 이 자료 자체만으로는 그 정보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勞動力 活用 分野의 모색 등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³⁾

예를 들어 제4부에서 가장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표는 ‘Number of Labor Population by Occupation’ 표와, ‘Number of Labor Population by Industry’ 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자의 표는 각 연령대 별로 Worker, Officer, Farmer의 수를, 후자의 표는 총 7개 大分類 산업별로 남녀 노동인구수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⁴⁾

제5부(Technician, Specialist) 부분도 일견 관심을 끌 만한 제목이지만, 여기에 수록된 표들 역시 극히 적은 양의 정보만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예컨대 ‘Number of Technicians and Specialists’ 표⁽⁵⁾에 있어서도 분류 항목은 기술자는 엔지니어 항목 및 보조 엔지니어 항목으로, 전문가는 선임 전문가 항목 및 초급 전문가 항목으로만 분류되어 있고, 이 분

(3) 제4부 및 제5부에 수록된 통계표는 Number of Working-Age Population, Composition of Number of Working-Age Population by Province, Number of Labor Population by Sex and Age, Number of Labor Population by Occupation, Composition of Labor Population by Age, Number of Workers, Number of Officers, Number of Co-op Farmers, Number of Labor Population by Industry, Composition of Labor Population by Industry, Number of Labor Population by Urban/Rural Residence and Age, Number of Non-working Population, Composition of Non-working Population by Age, Number of Non-working Population among Working-Age Population(이상 제4부), Number of Technicians and Specialists, Number of Technicians and Specialists by Age, Composition of Technicians and Specialists by Age, Number of Female Technicians and Specialists, Composition of Female Technicians and Specialists by Age(이상 제5부)인데, 각 표는 매우 간단한 내용, 가령 대략 10 내외의 행과 4 정도의 열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4)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1995, p. 507 및 p. 513)의 표를 참조할 것.

(5)

〈表 1〉 Number of Technicians and Specialists

Index	Total	Male	Female	person
				Female (%)
Total	1,789,918	1,029,861	760,057	42.46
— Technician	829,420	582,391	247,029	29.78
Engineer	376,328	370,684	68,644	18.24
Ass. Engineer	453,092	274,707	178,385	39.37
— Specialist	960,498	447,470	513,028	53.41
Senior Specialist	534,459	304,707	229,752	42.99
Junior Specialist	426,039	142,763	283,276	66.49

資料.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1995, p. 523).

류를 남성, 여성별로 집계한 것이어서, 사실상 별 효용이 없는 통계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괄적 통계표들로는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의 도출이 어려우며, 훨씬 더 세부적으로 분류된 자료가 필요하나, 이러한 자료는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발표 내지 제공하는 통계자료의 부실성은 그 자체로서 南韓의 對北 經濟關係 정책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관계가 북한의 경제상황 개선 효과를 가지려면 북한의 경제체제가 변화되고 북한이 남한 기업과의 상호이익적 경제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南韓에서 지난 1970년대 초 이래 종종 주장되어 온 바와 같이 對北 經濟關係에 종사하는 南韓 기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北韓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지원조치를 실시할 경우, 北韓은 체제 변혁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위한 압력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南韓의 對北韓 경제정책은 北韓이 北韓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南韓 企業에게 최대한 정보를 개방하는 것이 합리적이게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지원 제공만으로는 남북한 경제관계의 양적 확대 자체도 어려우며, 오히려 일방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북한은 남한 기업이나 남한 정부가 경제관계 증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동서독 경제교류와 관련하여, 서독이 동독을 일방적, 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동독 경제체제의 변화를 오히려 지연시키고, 동독 정부가 민간 동서독 경제교류의 확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동독 주민의 고통을 연장,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南北韓 經濟關係의 확대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北韓이 스스로 남북한 간의 經濟關係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對北韓 交易國 貿易統計 分析을 통한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 優先順位 決定

2.1. 對北韓 交易國 貿易統計(Mirror Statistics) 使用의 意義

北韓의 勞動力 실태와 직접 관련된 원자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를 선정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통계는 무역 통계자료이다. 무역 통계자료, 특히 北韓의 수출 상품 통계는 北韓이 실제로 외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이 이루어진

분야를 나타내 준다는 면에서, 南韓 기업들이 北韓의 勞動力을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분야가 어떤 것인가를 탐색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北韓 수출통계는 그것 자체만으로 일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北韓 勞動力 활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타내 줄 수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북한의 어떤 산업분야의 상품이 외국에 수출되었다는 것 자체가, 남한의 기업이 그 제품을 반드시 북한에서 생산하는 것이 적절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제3국, 예컨대 중국이나 기타 동남아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용 등 여러 면에서 더 나을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로 예컨대 동남아 국가에서의 임금 수준과 북한에서 북한 당국이 결정해 줄 임금 수준 등을 구체적인 협상 과정 등을 통해 비교해 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용 등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장단점들, 예컨대 제3국 노동자와의 의사소통 문제와 북한 노동자와의 의사소통 문제, 고려 대상국의 노동자들의 노동 의식, 기술 습득 능력 등 여러 요소들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기업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할 것 또한 물론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북한의 산업 분야 중 어떤 분야에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관한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며, 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북한 지역에서의 공단 조성 등 대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인적 교류 사업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외국 노동력 활용의 경우와 비교할 필요성이 적을 것이므로 더욱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어떤 北韓의 상품이 수출되었다는 것은 일단 수출입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 수입자에 의해 그 시장성을 검토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격, 품질 측면에서의 국제적 비교우위 뿐만 아니라, 北韓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의 지속적 조달 가능성, 제품생산을 위한 하부구조의 존재, 생산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勞動力의 존재 등이 일차적으로 수입자에 의해 직접 검토되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외국의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입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기본 조건의 검토는 당연한 것이고, 또한 실제 거래가 성사된 경우 이는 상기 조건이 충족됨으로 인해 수출입 계약대로 생산, 수출이 실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 무역통계자료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봉착하는 첫 번째의 문제는 바로 北韓에서 다른 분야의 통계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대외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北韓의 무역통계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北韓의 무역 상대국들에서 발표하는 對北韓 무역통계자료를 통합하여 산출되는 자료, 즉 Mirror Statistics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따라서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자료로서 이러한 北韓 무역에 관한 간접통계자료의 활용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 北韓 무역의 간접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서, 해외무역관 보고를 종합하여 통계를 작성하여 연도별로 '北韓의 대외무역동향' 자료집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北韓의 주요 수출 상대국 이외의 국가와 北韓과의 교역에 관한 자료는 원자료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완전히 집계하지는 않고 있으나, 北韓 무역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2. 北韓貿易 間接統計資料 使用 時의 考慮事項

구체적으로 北韓 勞動力를 활용하려고 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北韓의 수출 실적 내용의 검증 외에도 각 사안에 따른 특정한 내용들의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재언의 필요가 없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 즉 北韓의 상품 수출 실적이 많은 분야에서의 北韓 勞動力 활용을 고려할 때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대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2.2.1. 北韓 貿易相對國의 經濟體制 問題

첫째는 北韓의 해당 상품 수출이 어떤 經濟體制를 가진 국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가의 문제이다. 北韓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중국인데, 아직 중국의 체제 자체가 완전히 시장경제로 전환되지 않았고 국가의 경제지배가 상당부분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대중국 무역 통계자료가 시장경제적인 의미에서 北韓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종래의 北韓과 중국 간 經濟關係는 주로 원조성 교역 내지 사회주의 국가 간에 몰자대조표의 고려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 무역계획에 따른 國家貿易이었기 때문에 무역통계가 시장경제 간 무역에서와 같은 국제경쟁력을 반영한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 현재 北韓-중국 간 무역이 상업적 베이스의 무역거래로 전환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중국의 기업들 중에는 국영기업들 내지는 국가에 의해 그 의사결정이 상당부분 영향 받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北韓-중국 간 무역 통계 중에는 이러한 거래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북-중 무역액 중 어느 품목, 어느 비율만큼이 국제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시에 아직도 북-중 무역에서는 소액 변경무역, 무상원조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8년의 경우 북-중 무역에서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이르며, 北韓의 대중국 수출의 66%를 차지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9, p. 16)]. 중국의 무역이 상업적 베이스로 전환해 감에 따라 北韓의 총 무역액 중에서 대중국 무역의 중요성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

〈表 2〉 北韓의 10대 貿易相對國 (단위: 미\$천, %)

순위	국 가	北韓의 輸出		北韓의 輸入		輸出入計		占有率	
		1998년	1999년	1998년	1999년	1998년	1999년	1998년	1999년
1	중 국	57,313	41,709	355,705	328,660	413,018	370,369	28.6	25.0
2	일 본	219,489	202,564	175,137	147,839	394,626	350,403	27.4	23.7
3	인 도	36,673	44,347	28,999	98,004	65,672	142,351	4.6	9.6
4	홍 콩	52,454	63,271	30,230	60,507	82,684	123,778	5.7	8.4
5	독 일	29,638	23,703	24,370	32,557	54,008	56,260	3.7	3.8
6	싱가포르	2,323	2,723	33,899	48,061	36,222	50,784	2.5	3.4
7	러 시 아	8,462	1,613	56,500	48,507	64,962	50,120	4.5	3.4
8	태 국	1,347	3,242	9,183	34,705	10,530	37,947	0.7	2.6
9	방글라데시	28,897	24,246	547	3,400	29,444	27,646	2.0	1.9
10	영 국	1,268	2,411	17,849	22,141	19,117	24,552	1.3	1.7
10대 교역국 합계		437,864	409,829	732,419	824,381	1,170,283	1,234,210	81.0	83.4
전체금액		559,331	514,962	882,863	964,585	1,442,194	1,479,547	100.0	100.0

註: 10대 무역 상대국은 1999년 기준임.

資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8, 1999).

는 그만큼 종래의 다량의 대중국 무역이 시장경제적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국가계획적 무역으로 인한 것임을 반증한다.

〈表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北韓의 무역 상대국 중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특히 北韓의 수입 부문에서 그러하고, 北韓의 수출에서는 중국은 일본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특히 그 차이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 北韓의 수입에 있어서도 중국이 아직 제1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북-중 무역은 전체적으로 큰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北韓의 대중국 수출(〈表 3〉에서 중국의 對北韓 수입)은 대일본 수출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다. 중국이 北韓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北韓의 대중국 수입이 많아서이며, 北韓의 수출상대국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는 국가는 일본이다. 1999년에 들어 중국은 일본, 홍콩, 인도에 뒤이어 겨우 제4위의 수출상대국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것은 역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 北韓 수출상대국으로서 중국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북-중 무역이 최근과 같은 상업적 베이스 국제무역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무역관계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 모색을 위해 北韓의 무역 통계를 이용하면서 어떤 특정한 해의

〈表 3〉 中國-北韓 貿易의 變化

(단위: 미\$천, %)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중국의 對北韓 수출	486,187	14.5	497,029	2.2	534,680	7.6	355,705	△33.5	328,660	△7.6
중국의 對北韓 수입	63,606	△68.1	68,638	7.9	121,610	77.2	57,313	△52.9	41,709	△27.2
무역총액	549,793	△11.9	565,667	2.9	656,290	16.0	413,018	△37.1	370,369	△10.3
무역수지	422,581		428,391		413,070		298,393		286,951	

資料: 중국해관통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공.

특수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일정한 장기간의 통계자료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중국과의 교역 자료가 포함된다면 이는 그만큼 시장경제적 국제경쟁력 상황을 나타내 주지 못하는 무역 실적이 포함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러 이유에서 北韓 貿易 統計를 南韓 企業의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 모색을 위한 분석자료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北韓-中國 무역 통계를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제외하고자 한다.

北韓의 수출능력을 참고하여 勞動力 활용 部문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볼 때, 중국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중국을 제외한 北韓의 수출 상대국과의 교역 자료를 각 세부분류 분야별로 합산하여 北韓 수출 총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일수록 일단 勞動力 활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논의될 기준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2.2.2. 個別 經濟主體의 意思決定 目標

둘째, 北韓의 勞動力을 활용하려고 하는 南韓기업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北韓의 勞動力을 활용하여 北韓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南韓에 반입하여 南韓 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것인지, 만일 수출하려는 경우라면 어느 국가에 수출하려 하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가령 미국, 일본, EU에서 적용되는 수입관세는 품목별, 수입국가별, 수출국가별로 큰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北韓산 제품의 국제적 가격경쟁력 자체가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수출대상국들에서 北韓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가되는 품목은 南韓 기업 입장에서 보면 北韓 勞動力을 현지에서 활용하여 생산, 수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 시도하는 다른 기준, 예컨대 北韓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

前後方聯關效果가 높은 부문 등 대략적인 스크린이 행해진 후에는 각 기업들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北韓 勞動力 활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北韓 勞動力을 활용하여 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예로 들어 본다면 첫째, 수출 고려 대상국에 對北韓 교역 규제조치가 있는지의 여부, 원산지 규정은 어떠한지, 적용 관세율 및 쿼터, 이에 따른 北韓산 제품의 수출 고려 대상국에서의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등이다[정원준(2000, p. 13)].

예컨대 의류 제품의 경우 일본은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대략 4.5-8%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北韓산 제품에 대해서는 대략 16% 대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산에는 4.2-27.8%대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北韓산에는 45-90%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정원준(2000, p. 14)]. 따라서 의류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南韓 기업 입장에서는 가령 위탁가공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려 할 때에, 중국에서 생산할 것인가, 北韓에서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출 대상국 관세율의 비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北韓의 수출품목 중에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전자제품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대략 0-5%인 반면에 北韓제품에 대해서는 대략 35% 정도의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대미 수출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그만큼 北韓에서의 생산이 불리하게 된다[정원준(2000, p. 16)]. 물론 관세율에 의한 가격 경쟁력 감소요인 이외에, 北韓에서의 임금 비용이나, 南韓으로부터 北韓에로의 설비반출에 있어서의 가능한 비용 절약요소라든가, 北韓 勞動力의 재교육상의 이점 등의 여타 요소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생산단가가 중국에서의 생산보다 北韓에서의 생산이 저렴할 경우 이러한 관세요소를 감안하더라도 北韓 勞動力 활용이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EU국가들에의 수출에 있어서는 미국에의 수출의 경우에 비해 중국산, 北韓산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율 차이가 적게 되므로[정원준(2000, p. 16)] 관세상에서의 가격 경쟁력 차이보다 생산지에 따른 노동 비용의 차이 등 다른 요소가 더 큰 경쟁력 결정요소가 될 것이다.

요컨대 개별적인 기업의 勞動力 활용 결정, 즉 생산지 결정의 문제에 있어 기업들은 각각의 생산제품의 수출국 관세 등 여러 구체적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北韓과 미국의 관계개선에 따라서 1990년대 이후 北韓 제품의 미국 수출을 막았던 관세, 비관세 장벽이 대거 완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도 관세율은 시간별, 지역별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

변적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

2.2.3. 委託加工 交易에서의 設備 및 原副資材 生産地 問題

셋째, 北韓 勞動力을 활용, 北韓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가공 교역에서 설비 및 원부자재를 北韓산을 주로 쓸 것인가, 南韓산을 쓸 것인가의 문제도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 선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를 탐색하는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어진다. 다만 여기서 언급할 것은, 남북 교역의 초기에는 北韓産 설비를 사용하는 단순 위탁가공 교역이 실시되었으나, 1994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로 인해 南韓 기업의 대북 설비반출이 허용된 이래 南韓의 설비를 이용한 위탁가공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탁가공 교역 초년도인 1992년에는 위탁가공 교역이 총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도에는 총 교역액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南韓의 대북 지원물자, KEDO 중유, 경수로물자, 금강산 관련 장비 및 물자 반출을 제외한 실질 총교역액 1억 4천 6백만 달러 중 위탁가공교역의 비중은 48.6%에 이르고 있다[김규륜(1999, p. 10)]. 그만큼 위탁가공교역, 즉 北韓 勞動力 활용이라는 요소는 南北經濟關係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를 결정하는 데 있어 北韓産 중간재(설비, 원료 등)를 주로 쓰는가 아니면 南韓産 중간재를 주로 쓰는가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된다.

2.2.4. 經濟外的 이유로 貿易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産業分野의 問題

北韓 내부의 이유, 또는 국제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해 북한이 수출할 수 없어서 무역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北韓 무역 통계 자체로는 北韓 勞動力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없지만, 남북한 간의 합의에 따라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분야는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무역 통계로 北韓 勞動力 활용의 적합성이 파악될 수는 없으나 勞動力 활용이 의미 있을 수 있는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들 수 있다.

1. 北韓 스스로 시장경제국가와의 대외 경제관계를 제한한 분야. 예: 건설 분야.⁽⁶⁾
2. 국제정치적 요소로 대외經濟關係가 제한된 분야(바세나르 조약 등 외부적 요인으로 北韓의 對外經濟關係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야). 예: IT(정보기술) 분야.⁽⁷⁾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무역 통계나 뒤에서 살펴볼 산업연관분석자료에 의해 北韓 勞動力 활용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해외건설 분야나 소프트웨어 분야

(6) 건설분야의 북한 노동력 활용에 관해서는 허경신(1999, p. 67 이하)을 참조할 것.

(7) IT분야 남북협력에 관해선 예컨대 이태섭(2000, pp. 12-38)을 참조할 것.

등 북한 무역 간접 통계자료에 반영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2.3. 北韓 貿易 間接統計資料 分析의 示唆點

北韓 貿易 間接統計資料를 이용하여, 北韓이 시장경제 국가들에 대해 상품을 수출한 분야를 과거 3년간 평균자료를 통해 정리한 결과는 <表 4>와 같다.

<表 4>는 北韓의 무역상대국들⁽⁸⁾의 통계에서 추출한 北韓의 3년간 품목별 수출액의 연평균 액수이다.

3년간의 연평균 수치를 사용한 것은 특정연도의 특정상황에 의한 왜곡효과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코트라에서 제공한 각국별, 연도별, 품목별 對北韓 무역통계자료를 본 연구에서 가공한 것이다.

표에서의 각행 번호는 HS 코드 두 자리 분류를 다시 그룹화한 상품군 번호이다.

<表 4> 北韓의 品目別 年平均 輸出實績

(단위: 미\$천, 기간: 1997-1999년)

상품분류	액수	상품분류	액수
11. 섬유	143,937	12. 신발류	7,810
16. 기계류	73,005	10. 펄프, 종이	5,003
14. 귀금속	68,338	8. 원피가죽	3,806
1. 산동물	60,173	18. 광학정밀	3,111
2. 식물제품	48,585	17. 차량	2,924
15. 비금속	43,257	4. 조제식료품	2,743
5. 광물성생산물	26,500	3. 동식물류	2,655
7. 플라스틱	19,882	13. 시멘트류	2,171
6. 화학공업제품	17,926	9. 목제품	1,260
19. 기타	15,677	전체 합계	557,662

(8) 일본, 홍콩, 인도, 독일, 방글라데시, 프랑스, 러시아, 태국, 스페인, 대만, 폴란드, 인도네시아, 벨지움, 네덜란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우루과이, 콜롬비아, 불가리아, 쿠바, 베트남,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호주, 아일랜드, 스리랑카, 이탈리아, 페루, 이란, 체코, 우즈베크, 남아공화국, U.A.E., 슬로바키아, 영국, 스위스, 덴마크, 나이지리아, 그리스, 헝가리, 파키스탄, 에콰도르, 노르웨이, 필리핀, 멕시코, 루마니아, 핀란드, 코트디브와르, 신유고연방, 스웨덴, 캐나다, 이집트,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몽골, 포르투갈, 요르단, 뉴질랜드, 이디오피아, 에멘, 튀니지, 키르키즈, 칠레, 터키, 벨라루시, 슬로베니아, 카타르, 아르헨티나, 미국, 리비아, 싸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짐바브웨, 케냐, 쿠웨이트, 타지크스탄, 파라과이,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미얀마, 베네주엘라, 과테말라, 우루과이, 이라크, 레바논, 오만. 전술한 이유로 중국은 의도적으로 제외함.

구체적 상품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HS코드의 더 세분된 분류에 따라 분석하면 될 것이다.⁽⁹⁾

3. 産業聯關分析을 통한 勞動力 活用 分野 選定

3.1. 勞動 投入 및 使用과 産業聯關分析

노동은 産業聯關表의 세로 방향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投入 항목인 賃金과 직결된 요소이다. 또한 가로 방향으로 볼 때에도 어느 분야에서의 勞動力이 얼마만큼 活用되느냐 하는 것에 의해 전체 경제 부문이 대단히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産業聯關表를 적절히 해석함으로써 勞動力 활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유출해낼 수 있다.

논의의 체계를 위해서 먼저 産業聯關表의 구성부분들을 도시하고 그 순서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産業聯關表의 구조와 관련하여, 이것이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 모색에 어떤 유형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3.2. 北韓勞動 投入, 北韓產 設備 및 原資材 投入과 中間投入率의 政策的 意味

産業聯關表에서 세로 방향은 각각의 산업부문에 대해 그 산업의 비용구성, 즉 투입 구조를 나타내 주는데, 어떤 산업의 '총투입액'은 그 산업이 다른 여러 산업들로부터 어떤 원재료를 제공받아 투입했는가를 의미하는 '中間投入'과,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얼마나 투입했는가를 나타내는 '附加價値'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어떤 산업이 여러 산업들 각각으로부터 제공받은 투입액들을 그 산업의 투입액(=총산출액)으로 나

〈表 5〉 産業聯關表의 構成

		중간수요	최중수요				총수요	수입(공제)	총산출액
		각 산업	소비	투자	수출	계			
중간투입액	각 산업	〈1〉	〈6〉	〈7〉	〈8〉	〈9〉	〈10〉	〈11〉	〈12〉
부가가치	임금	〈2〉							
	기타	〈3〉							
	계	〈4〉							
총투입액		〈5〉							

(9) 현재 KOTRA에서 발표하고 있는 北韓의 대외무역동향 자료에서는 北韓의 10대 교역상대국에 대해서만 HS 2단위까지의 품목 분류에 따른 무역 자료가 발표되고 있다.

는 값이 投入係數이고, 그 산업의 투입계수의 합계가 中間投入率인 바, 이것은 그 산업의 총투입액(=총산출액) 중에서 여러 산업들로부터 원료로 제공받은 중간투입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表 5>에서 표시한다면, 각 산업별로 <1>/<5>의 값이 그 산업의 中間投入率이 된다.

産業聯關表상의 中間投入率 개념으로부터 北韓의 勞動力 活用 分野 決定을 위해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南韓 기업이 北韓에서 北韓 勞動力을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간투입(설비, 원료 등)의 조달처를 南韓으로 할 것인가 北韓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北韓에서 주로 北韓産 설비, 원자재 등 중간투입재를 사용하여 北韓 勞動力을 활용, 생산하려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北韓의 産業聯關表에 있어서, 北韓의 어떤 산업이 中間投入率이 높다면 이는 그 산업의 제품 생산에 있어서 타 산업들부터 공급받는 중간 원자재의 사용 비중이 노동 등의 투입 비중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北韓 경제의 공급 애로에 의해 생산에 차질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아직 北韓 경제의 안정성이나 원료공급 능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北韓産 설비,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일수록 北韓에서 中間投入率이 높은 산업보다는 낮은 산업이 北韓 勞動力 활용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北韓의 産業聯關表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인데, 北韓 産業聯關表 대신 南韓 産業聯關表에서의 中間投入率 순위를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 導出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타당할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는, 제품생산에서의 中間投入率은 南韓이나 北韓이나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1970-1995년간의 南韓의 産業聯關表 자료에서 살펴보면 南韓에서의 산업별 中間投入率 구조는 1970년도에 있어서나 1995년도에 있어서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자료 원용은 실제의 북한 원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가능하다면 같은 기준에 의해 남한 및 북한의 산업분석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¹⁰⁾

(10) 여기서도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인적 교류를 포함하는 남북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의 공동 작성에도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남한 당국은 이러한 기초작업에 대한 협조를 교류확대조치의 전제조건으로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한국은행과의 협조하에 북한의 산업연관표 작성이 시도된다면, 이는 남한

〈表 6〉南韓의 産業別 中間投入率(産業分類: 統合中分類)

분류번호	부문명칭	中間投入率	분류번호	부문명칭	中間投入率
0075	사무용품	1.000000	0043	철강1차제품	0.753206
0011	정곡 및 제분	0.942043	0014	조미료 및 유지	0.752920
0051	컴퓨터 및 사무기기	0.855001	0029	유기화학기초제품	0.746355
0042	선철 및 강반성품	0.841653	0017	배합사료	0.744409
0027	석탄제품	0.831059	0056	기타수송장비	0.732267
0019	섬유사	0.821576	0024	목재 및 나무제품	0.724008
0009	육류 및 낙농품	0.818634	0020	섬유직물	0.713500
0032	화학섬유	0.812251	0023	가죽제품 및 모피	0.712610
0033	비료 및 농약	0.801473	0035	기타화학제품	0.710518
0002	축산	0.793380	0015	과채가공품 및 기타식료품	0.708186
0012	제당 및 전분	0.777927	0054	자동차 및 부분품	0.703884
0010	수산가공품	0.773083	0025	펄프 및 종이	0.699164
0044	비철금속피 및 1차제품	0.769624	0036	플라스틱제품	0.694301
003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0.760403	0013	빵, 과자 및 국수류	0.693940
0050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0.758140	0052	가정용전기기기	0.686615

註: 1995년, 中間投入率 상위 30개 부문 예시.

資料: 한국은행(1995, 産業聯關表)에서 관련 사항 도출.

물론 〈表 6〉에 나타난 정보만으로 독립적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北韓의 무역통계 자료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表 6〉에서는, 전술한 이유로 인해, 中間投入率 수치가 큰 부문일수록 北韓에서 생산된 설비 및 원자재를 조달, 투입하여 생산하기에 부적합한 분야이고, 中間投入率 수치가 작은 부문일수록 北韓産 投入財를 사용하여 생산하기에 적합한 분야라고 볼 수 있으며, 같은 논리로 위 표에서 中間投入率이 높은 산업일수록 위탁가공 등으로 北韓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할 때에 南韓産 設備 및 原資材 투입 비중을 높여야 할 산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南韓産 설비, 원재료를 주로 사용하여 北韓에서 北韓勞動力을 활용, 제품을

의 산업연관표와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것은 세로방향의 투입 요소 분류에 있어서 그러하다. 만일 종래의 복한식 회계 개념에 따라 북한의 산업연관표가 작성된다면, 전통적인 노동가치론에 입각한 중앙관리경제체제에서, 産業聯關表상의 주요개념인 임금, 기업이윤 등의 처리 방식이 시장경제에서의 그것과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로 방향의 구성요소 중에서도 소비, 투자 등의 세부 항목 분류기준 자체가 시장경제에서의 그것과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생산하려는 기업의 경우에는, 中間財 調達의 安定性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中間投入率 순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南韓에서의 中間投入率이 높은 산업분야라고 해서 더 유리한 면도 없을 것이며, 中間投入率이 낮다고 해도 그 낮은 만큼의 중간재만 南韓에서 잘 조달될 수 있다면 중간재 조달면에서의 생산 애로는 부문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3.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 選定과 勞動投入率과의 關係: 生産費用 節減效果의 問題
 産業聯關表를 이용한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 善政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는 勞動投入率이라고 할 수 있다.

北韓 勞動力 활용의 직접적인 목표는 勞動費用의 節減에 있다고 볼 때에, 南韓에서의 제품 생산에 있어 노동비용의 비중이 높은 분야일수록 北韓에서의 勞動力 활용이 전체적으로 비용절감효과를 크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南北韓 産業聯關表 중에서 당연히 南韓의 産業聯關表가 필요한 것이며, 그만큼 상기한 産業聯關表 분석에 있어서의 자료 수집 애로와 관련된 문제가 적다고 할 수 있다.

産業聯關表 상에서 어떤 산업분야의 생산 총액에 있어서 勞動에 대한 報酬로서 지급된 액수는 '被傭者報酬' 항목으로 나타난다.

〈表 5〉에서 본다면 각 산업별 노동비용 투입 비중은 $\frac{2}{5}$ 가 된다.

1995년도의 産業聯關表에서 이와 관련된 수치를 추출, 노동투입률 수치가 큰 산업분야 순서대로 보면 〈表 7〉과 같다.

3.4. 前後方聯關效果와 北韓 勞動力 活用 政策 目標와의 關係

3.4.1. 前後方聯關效果의 政策的 意味

産業聯關表 분석상의 前後方聯關效果와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 決定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도 어떤 목적으로 北韓 勞動力을 활용하려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문제와 직결된 산업연관표 관련 개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前後方聯關效果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보다 정부 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後方聯關效果란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해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그 생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중간재, 원료를 공급하는 산업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각 산업 간의 직접적인 상호의존관계만 고려할 경우 한 산업의 後方聯關效果는 그 산업이 타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구매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中間投入率에 의해 표시되고, 실제적으로 전체 산업들이 상호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간접적인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後方聯關效果는 影響力係數에 의해 표시되게 된다. 影響力係數

〈表 7〉 南韓의 産業別 勞動投入率(産業分類: 統合中分類)

분류번호	부문명칭	勞動投入率	분류번호	부문명칭	勞動投入率
0007	금속광석	0.296061	0041	기타비금속광물제품	0.184542
0026	인쇄, 출판 및 복제	0.276660	0048	전기기계 및 장치	0.183850
0039	도자기 및 점토제품	0.268247	0053	정밀기기	0.178015
0062	토목건설	0.259003	0034	의약품 및 화장품	0.172984
0004	수산물	0.247851	0020	섬유직물	0.172828
0061	건축 및 건축보수	0.240741	0037	고무제품	0.170287
0008	비금속광물	0.221495	0047	특수목적용기계 및 장비	0.168397
0038	유리제품	0.212623	0024	목재 및 나무제품	0.162286
0057	가구	0.210929	0013	빵, 과자 및 국수류	0.160531
0055	선박	0.208077	0030	무기화학기초제품	0.159280
0045	금속제품	0.205889	0036	플라스틱제품	0.155775
0022	기타섬유제품	0.201333	0015	과채가공품 및 기타식료품	0.151113
0021	의류 및 장신품	0.194787	0003	임산물	0.150729
0023	가죽제품 및 모피	0.190668	0040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0.150361
0046	일반목적용기계 및 장비	0.187550	0060	도시가스 및 수도	0.138893

註 1995년, 勞動投入率 상위 30개 부문 예시(제조업 중심).

資料: 한국은행(1995, 産業聯關表)에서 관련 사항 도출.

는 한 산업에 의한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것으로, 경제전체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影響力係數가 크게 된다.

또한 한 산업의 증가된 생산물이 다른 산업들에 의해 중간재로 쓰여져 그 산업들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영향의 정도인 前方聯關效果는 직접적인 상호의존관계만 고려할 때 한 산업이 여러 산업들에 중간재를 판매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중간수요율로 표시되고, 간접적인 파급효과까지 고려할 때에는 感應度係數로 표시된다. 感應度係數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어떤 한 산업이 받게 되는 영향을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 어떤 산업의 제품이 다른 여러 산업들에 의해 중간재로 많이 쓰이는 경우라면 그 산업의 감응도계수가 크게 되는 것이다.⁽¹¹⁾

北韓 勞動力 活用과 관련된 정책목표는 크게 北韓 經濟 發展 誘導와 南韓 經濟 成長 誘導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1) 이와 관련된 좀더 상세한 개념에 대해서는 김준보(1975, p. 35ff, 특히 p. 50 이하)와 한국은행(1995, p. 386)을 참조할 것.

北韓 勞動力을 투입하여 생산한 최종 제품이 어디에서 사용되는가는 크게 세 가지로, 즉 北韓에서 사용되는 경우, 南韓에서 사용되는 경우(즉 南韓으로 반입되는 경우), 바로 수출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로 前方聯關效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설비, 원료 등)가 南韓에서 반출하는 것인가, 아니면 北韓산인가 하는 것도 구분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주로 後方聯關效果와 관련이 있다.

물론 위의 여러 요소는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 중간적인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컨대 北韓에서 北韓 勞動力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중간재는 가령 70%는 南韓산, 30%는 北韓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생산된 제품은 가령 10%는 北韓에서 사용하고 40%는 南韓으로 반입하며 50%는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생산제품이 南韓 또는 北韓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로 다시 중간재로 사용되는 제품인가, 아니면 최종 소비재로 사용되는 것인가에 따라 역시 前後方聯關效果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실제에 있어서는 추구하는 정책목표, 생산 제품의 사용장소 및 사용용도, 생산 제품의 중간재 생산지, 이러한 요소들의 배합 비율 등 매우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정책목표가 北韓 經濟 發展 支援인 경우를 보자.

<表 8>의 1의 경우, 예컨대 어떤 산업부문에서 北韓 勞動力 활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산업의 後方聯關效果가 크다면, 이 산업이 北韓産 中間財를 주로 사용하므로 이 산업

<表 8> 前後方聯關效果, 中間財 生産地, 最終財 使用地의 組合 類型

區分	政策目標	中間財 生産地	最終財 使用地
1	北韓經濟 支援	北韓	北韓
2			南韓
3			外國(輸出)
4		南韓	北韓
5			南韓
6			外國(輸出)
7	南韓經濟支援	北韓	北韓
8			南韓
9			外國(輸出)
10		南韓	北韓
11			南韓
12			外國(輸出)

의 생산 증대에 따라 다른 산업에서의 생산 증대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 이 산업의 前方聯關效果가 크다면 이 산업은 北韓 경제 전체에 중간재공급을 많이 하는 산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 산업의 생산증대로 인해 北韓경제에 있어서의 원료공급 애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요소, 즉 앞에서 살펴본 北韓 중간재 투입의 안정성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중간재 생산지에 따른 後方聯關效果를 먼저 살펴보고, 최종재 사용지에 따른 前方聯關效果를 살펴보기로 한다.

後方聯關效果와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北韓에서의 안정적 중간재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의 안정성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北韓에서의 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부문에의 勞動力 활용을 추진하는 것은 적어도 北韓 경제가 상당 수준으로 안정화되기 전에는 권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表 8> 1, 2, 3의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 4, 5, 6의 경우에 있어서는, 南韓의 중간재를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後方聯關效果와 관련하여 北韓의 경제지원 효과라는 측면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7, 8, 9의 경우는 北韓산 중간재를 투입하는 경우이므로 南韓의 중간재 생산부문과는 관계가 적어서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0, 11, 12의 경우에 있어서는, 北韓에서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가 南韓에서 생산되는 경우이므로, 南韓 경제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後方聯關效果가 큰, 즉 南韓 産業聯關表상에서 感應度係數가 높은 부문일수록 北韓 勞動力 활용이 정책목표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前方聯關效果와 관련하여 생산물 사용자 측면에서 본다면, 1과 4의 경우 北韓에서 생산된 제품이 北韓에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北韓 産業聯關表상 前方聯關效果가 큰 산업 부문에서 南韓기업에 의한 北韓 勞動力 활용이 이루어져 생산이 증대되는 것은 北韓의 중간재 공급 증대라는 면에서 北韓 경제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8과 11의 경우는 北韓에서 생산된 제품이 南韓에 반입되어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南韓의 産業聯關表상에서 前方聯關效果가 큰 산업부문일수록 北韓에서의 勞動力 활용이 南韓경제 지원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다양한 측면들을 분석하고 직접 상호의존 효과를 표시하는 中間投入率, 中間需要率, 그리고 綜合的 間接的 波及效果까지 고려하는 感應度係數, 影響力係數를 각 정책목표별로 모두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결론을 잠정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서 본래 北韓의 産業聯關表를 사용해야 할 경우(後方聯關效果의 경우 1, 2, 3, 前方聯關效果의 경우 1, 4 등)에도, 北韓 産業聯關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산에서의 산업간 투입구조가 南北

韓 사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南韓 産業聯關表상에서의 제 계수들을 사용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하기로 한다.

3.4.2. 感應度係數와 勞動力 活用 分野: 中間財 供給 促進 效果의 問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기준으로서 감응도 계수가 높은 분야부터 北韓 勞動力 활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산업분야의 감응도계수가 높다는 것은 그 산업분야의 제품이 다른 산업분야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런 분야에서의 생산 증대는 곧 공급 사이드에서 중간재 공급 원활화를 통해 경제발전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 제품이 北韓에서 사용될 경우 北韓 경제지원효과도 클 것이며, 동시에 南韓에서 사용되는 경우 역시 南韓경제 성장촉진효과도 클 것이다. 이 감응도계수가 높은 산업분야일수록 특히 북한 경제의 생산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表 9>에서는 感應度係數가 큰 순서대로 산업부문을 예시하고 있다.

3.4.3. 影響力係數의 政策的 意味

두 번째로 고려할 기준은 影響力係數인데, 어떤 산업의 영향력계수는 그 산업에서의

<表 9> 南韓의 産業別 感應度係數(産業分類: 統合中分類)

분류번호	부문명칭	感應度係數	분류번호	부문명칭	感應度係數
0029	유기화학기초제품	3.063479	0005	석탄	0.968422
0028	석유제품	2.431281	0047	특수목적용기계 및 장비	0.963681
0001	작물	2.345019	0024	목재 및 나무제품	0.932910
0025	펄프 및 종이	2.176711	0002	축산	0.932080
0042	선철 및 강반성품	2.002455	0054	자동차 및 부분품	0.928664
0044	비철금속피 및 1차제품	1.888372	0026	인쇄, 출판 및 복제	0.908610
0006	원유 및 천연가스	1.854539	0017	배합사료	0.903184
0043	철강1차제품	1.765411	0020	섬유직물	0.897300
0049	전자기기부분품	1.382972	0012	제당 및 전분	0.889192
0035	기타화학제품	1.270665	0008	비금속광물	0.844783
0036	플라스틱제품	1.261087	0033	비료 및 농약	0.796937
003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168857	0009	육류 및 낙농품	0.762058
0046	일반목적용기계 및 장비	1.160261	0032	화학섬유	0.748249
0045	금속제품	1.117319	0003	임산물	0.740813
0048	전기기계 및 장치	1.104540	0061	건축 및 건축보수	0.725871
0030	무기화학기초제품	1.040983			

註: 1995년, 感應度係數 상위 30개 산업 분야 예시(제조업 중심).

資料 한국은행(1995, 産業聯關表)에서 관련 사항 도출.

생산 증대로 인해 수요 사이드에서 경제전체의 다른 산업들에서의 생산이 얼마나 크게 유발될 것인가를 의미한다. 이 계수가 큰 산업분야에서의 勞動力 활용이 있을수록 특히 南韓에서의 후방연쇄효과로 인해 南韓 경제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北韓 경제 지원효과 면에서 본다면 역시 영향력계수가 큰 산업분야일수록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때 우선순위 산정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中間投入率이 높은 부문일수록 우선 순위가 낮아지도록 결정해야 할 것이다. 즉 산업전체적인 측면에서의 影響力係數가 높은 산업일수록 우선순위를 높게 판단하되, 여기서 中間投入率이 높은 만큼 그 우선순위 점수계산 등에서 차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후에 北韓 정책당국과의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 北韓에서의 중간재 투입 안정성이 北韓당국과의 협약에 의해 보장된다면 전체적인 勞動力活用分野 결정에서의 影響力係數 반영비율을 感應度係數의 반영비율에 가깝게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도, 北韓 당국이 北韓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위한 여

〈表 10〉 南韓의 産業別 影響力係數(産業分類: 統合中分類)

분류번호	부문명칭	影響力係數	분류번호	부문명칭	影響力係數
0075	사무용품	1.451147	0036	플라스틱제품	1.186181
0042	선철 및 강반성품	1.405716	0002	축산	1.169738
0043	철강1차제품	1.375905	0047	특수목적용기계 및 장비	1.166424
0009	육류 및 낙농품	1.318963	0012	제당 및 전분	1.165155
0076	가계의소비지출	1.291575	0022	기타섬유제품	1.150905
0044	비철금속피 및 1차제품	1.270031	0035	기타화학제품	1.148265
0032	화학섬유	1.257216	0025	펄프 및 종이	1.146722
0051	컴퓨터 및 사무기기	1.255443	0027	석탄제품	1.142817
0033	비료 및 농약	1.216242	0055	선박	1.142765
003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212334	0050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1.142376
0023	가죽제품 및 모피	1.209452	0021	의류 및 장신품	1.135021
0020	섬유직물	1.209249	0052	가정용전기기기	1.125008
0045	금속제품	1.207462	0048	전기기계 및 장치	1.123738
0056	기타수송장비	1.207340	0046	일반목적용기계 및 장비	1.122361
0019	섬유사	1.200198	0013	빵, 과자 및 곡수류	1.104345
0054	자동차 및 부분품	1.198533			

註: 1995년, 影響力係數 상위 30개 산업 분야 예시(제조업 중심).

資料: 한국은행(1995, 産業聯關表)에서 관련 사항 도출.

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南韓 기업 및 정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가령 北韓의 産業聯關表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제껏 언급한 여러 측면에서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컨대 北韓 産業聯關表 상에서 산업별로 수출수요율, 즉 산업별 '수출/총산출액'의 순위에 따라 勞動力 活用 내지 투자 적합 분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北韓에의 투자 증대를 초래, 北韓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表 10>에서는 影響力係數가 큰 순서대로 산업부문을 예시하고 있다.

4. 結 論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의 주안점은, 北韓의 勞動力 현황에 대한 극심한 원자료 부족이라는 제약 상황하에서, 남북한 경제교류 정책에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산업 분야를 선정할 경우에 어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 자료들을 활용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해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본문에서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우선 北韓 산업분야 중에서 생산에서의 국제경쟁력, 각종 생산활동을 위한 기본조건의 성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 주는 자료로서 北韓 수출 통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北韓 수출 통계에 관한 원자료 활용의 불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北韓 수출 상대국들의 무역통계로부터 도출되는 간접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北韓에서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 투입의 안정성, 北韓 勞動力을 활용함으로써 절감될 수 있는 노동 비용의 감축효과, 北韓 勞動力 活用시 기대할 수 있는 北韓 경제 지원 및 南韓 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산업분야에서 北韓 勞動力을 활용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産業聯關表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北韓 勞動力 活用 分野 모색 과정에서 당면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北韓에서 직접 발표되는 원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北韓의 무역 상대국에서 발표되는 무역 통계와 産業聯關表를 분석하는 방식이 고려된 것인데, 여기서 또 다른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먼저, 가령 세계 수십개국의 對北韓 무역통계 자체가 분류체계의 다양성, 포괄하는 품목수의 상이 등 비교 내지 집계에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각 산업의 내부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여야 할 産業聯關表 상에서의 산업분류는 또 다른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 등[한국은행(1998)] 여러 기준에 따른 분석에서 사용되는 통계의

분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종 세부분석에서의 결과들을 일괄적으로 통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부분 분석, 예컨대 北韓 수출에서의 비중, 産業聯關表 상에서의 中間投入率 등에서의 각각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요소, 여러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려면 각 부분 분석 결과치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통합적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北韓에서 생산되는 원자료의 부재로 인해 간접적인 자료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북한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문제점인바, 이것은 남북관계의 확대를 통해 북한 경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하는 중요한 장애요소이다. 향후 北韓과의 직접 협력을 통해 北韓에서 생산된 원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다든가, 또는 北韓에에서 아직 그러한 원자료 자체가 생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원자료의 생산에서부터 함께 北韓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해볼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하겠다.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괄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北韓 수출실적의 간접통계자료를 이용하여, 北韓이 시장경제 국가들에 대해 상품을 수출한 분야를 최근 수년간의 평균자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수출 실적을 통해 노동력 활용 가능성이 검증된 분야의 순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산업연관표 분석상의 勞動投入率을 고려하여, 북한 노동력 활용으로 기업의 生産費用 節減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 순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노동력 활용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 경제적 차원 및 대북 정책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남한 및 북한 경제 발전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순위를 도출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중간재 공급 원활화를 통해 남북한 경제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 순위에 있어서는 감응도계수가 높은 분야부터 北韓 勞動力 활용을 권장할 수 있다.

어떤 산업분야의 感應度係數가 높다는 것은 그 산업분야의 제품이 다른 산업분야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분야에서의 생산 증대는 곧 공급 사이드에서 중간재 공급 원활화를 통해 경제발전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 제품이 北韓에서 사용될 경우 北韓 경제지원 효과도 클 것이며, 동시에 南韓에서 사용되는 경우 역시 南韓경제 성장촉진 효과도 클 것이다. 감응도계수가 높은 산업분야 일수록 특히 북한 경제의 생산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북한에서의 공단 설치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수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노동력 활용이 이루어져 생산이 증대될 때 수요 촉발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 순위와 관련하여, 산업연관표상의 影響力係數가

큰 산업분야에서의 勞動力 활용이 있을수록 특히 南韓에서의 후방연쇄효과로 인해 南韓 경제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北韓 경제지원효과 면에서 본다면 역시 영향력 계수가 큰 산업분야일수록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산업에서의 생산 증대로 인해 수요 사이드에서 경제전체의 다른 산업들에서의 생산이 얼마나 크게 유발될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資料活用方案, 意思決定基準을 고려하여, 정부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政策 目標을 위한 노동력 활용분야 선정기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남북 경제교류, 특히 北韓 勞動力이 투입되는 經濟協力事業을 추진하면서 상기한 바와 같은 多數의 政策目標을 추구하고 이 목표들 간에 優先 順位와 重要도가 결정된다면, 이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각 기준들에 의한 개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종합적 배점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부터 선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개별 기업들은 자신의 구체적 비용상황, 사업 전략 등에 따라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 절차는 특히 북한 지역이나, 추후 남한지역에서까지 북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단계, 내지 정부에 의해 북한(또는 남한)에 남북 합작생산을 위한 공단이 설치되는 등의 단계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며, 남북 합작생산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후에라도 정책적 목표에 의해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 분야를 선정하는 절차에서는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江陵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 副教授

210-752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산1번지

전화: (033)641-8777

팩스: (033)640-2166

E-mail: kimyk@kangnung.ac.kr

參 考 文 獻

김규륜(1998):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8-16.

_____ (1999):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 방안 — 추진 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 통일연구원(연구총서 99-05).

- 김용구(1992): “舊 內獨交易 ‘交易 自由化’ 方式의 南北韓 經濟交流을 위한 모델로서의 適合性에 關한 一 考察,” 江陵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편, 『統一問題研究』, 9, 49-84.
- _____ (1993): “南北韓間 交流 協力の 活性化를 위한 南北韓 經濟交流에서의 決濟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一 東西獨 經濟交流에서의 關聯 制度運營의 經驗과 南北韓 經濟 關係에서의 關聯 政策 및 提案과의 比較分析을 中心으로 一,” 통일원 편, 『'93 北韓 統一研究 論文集(II). 南北交流協力分野』, 273-344.
- _____ (1994a): “獨逸經濟의 統一과 體制轉換,” 이근 편, 『발전, 개혁, 통일의 제모델』, 서울, 21세기 북스社, 243-282.
- _____ (1994b): “獨逸의 社會的 市場經濟의 指導的 原則들과 韓國 經濟政策 改革方向의 選擇,” 韓國比較經濟學會 編, 『比較經濟研究 通卷 2號(1994) 一 韓國의 ‘新경제’ 와 各國의 經濟改革』, 서울, 박영사, 63-113.
- _____ (1995a): “獨逸 統一 關聯 經濟政策의 實際에서와 韓國의 統一 關聯 論議에서의 諸 問題點 比較 分析 및 改善方案 摸索을 中心으로 한, 韓國 統一 政策 모델 樹立을 위한 研究,” 國防大學院 安保問題研究所 편, 『1994 安保學術論集』, 5, 1, 473-553.
- _____ (1995b): “獨逸 統一 以後의 統一 關聯 諸 經濟政策의 手段 및 效果 分析에 立脚한, 韓國에서의 소위 ‘統一費用’ 에 關한 諸論議의 問題點 分析和 ‘統一費用’ 減少 方案의 摸索을 위한 研究,” 韓國比較經濟學會 編, 『比較經濟研究 通卷 3號(1995) 一 特輯: 南北韓의 經濟體制와 統合』, 서울, 박영사, 146-202.
- _____ (1997): “東西獨 經濟交流와 南北韓 經濟交流에서의 支援政策手段 比較 分析을 中心으로 한 南北韓 經濟交流 支援政策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강릉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연구(Social Science Review)』, 7, 71-114.
- 김준보(1975): 『産業關聯分析論』, 서울, 법문사.
- 노용환·연하청(1997): 『북한 인구센서스의 정책적 함의: 인구구조와 특성』,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8): 『1997년도 北韓의 대외무역동향』.
- _____ (1999): 『1998년도 北韓의 대외무역동향』, 1999, 6.
- 선한승(1995):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1998): 『남북한 노동제도의 비교와 노동정책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선한승·에릭임 편저(2000): 『북한의 노동제도와 노동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선한승·조명철 외(2000): 『남북협력과 노동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오승렬(2000): “경협 유망 분야 선정과 규모 추정,” 『통일경제』, 5, 20-27.
- 윤덕룡(1999): “북한 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적 추진 전략,” 『통일경제』, 3, 51-66.
- 이태섭(2000): “북한의 정보기술 산업 현황과 남북 협력 과제,” 『통일경제』, 8, 12-38.
- 정원준(2000): “北韓상품의 대미 수출,” 『통일경제』, 2000. 3.
- 통일부(1998): 『MTI분류에 따른 남북교역 통계자료: 1989-1997』.
- 한국은행(1995):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 _____ (1998): 『産業聯關表 Input-Out Tables(1970-1995)』, CD판.
- 허경신(1999):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북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 『통일경제』, 3, 67-81.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1995):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구일제조사자료집: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31 December 1993)』.
- Eberstadt, Nicholas(1999): “최근 남북한 사회·경제 여건의 수량적 비교,” 『통일경제』, 4, 95-102.
- _____ (2000): “北韓 공식 통계의 접근 가능성과 신뢰성,” 『통일경제』, 4, 85-96.
- Park, Chan-Mo(1998): “Mutual Cooperation on Information Tech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 Bottom-up Approach,” 민족통일연구원 편,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126-156.